

부산시, 2200억 규모 민생경제 대책 발표

1 제한업종 추가지원 2 사각지대 보완 3 금융문턱 ↓

코로나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재산 임대료 150억 감면
수혜대상 15만4000명 전망

부산시가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3가지 방향을 두고 마련됐다. 첫째,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지원으로 부담을 한층 덜고 둘째, 그동안 정부와 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의 문턱을 더 낮췄다.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총 2200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으로 직접지원 750억원, 감면 150억원, 금융지원 1300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만 15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피해 직접지원 확대

먼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실내체육·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11만 곳에

대해 정부지원에 더해 업체당 100만원, 총 110억원을 지원하고 식당·카페·목욕장 등 집합제한 8만 6000 곳에 대해 업체당 50만원, 총 4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총 540억원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분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경영안정, 생계지원을 위해 각각 5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을 포함해 23만원씩 총 6억4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해소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재산 임대료를 올해 6월까지 재연장해 3000여 곳에 150억원을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의 민간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건물 재산세의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해 생계형 상가 임

대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임차료 특별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1.9%를 1년간 시에서 직접 보전해 집합금지 대출이자 전액, 집합제한은 0.1~2.1%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운영, 기존 대출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해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자 보호 부산모두론의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9~10등급까지 확대하고 운영규모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모두론 플러스'를 운영하고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7일 오전 유진섭 정읍시장이 공무원들과 함께 이면도로 등 취약구간을 중점으로 눈을 치우고 있다. /정읍시

정읍시 제설작업 신속 추진

정읍시에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정읍시가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해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했다. 7일 유진섭 정읍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은 전날 밤부터 내린 폭설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설작업에 나섰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눈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유 시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주민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보도 등의 취약구간을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에 매진했다. 주민들의 능동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지역 내 설치된 제설함 곳곳마다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하는 작업도 펼쳤다.

도로 제설반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제설 차량 13대를 동원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도로면 결빙 예방에 힘을 쏟았다.

/정읍(전북)=강성태 기자 ksd1008@



여수시 "유기동물에 희망을 나눠 주세요" 여수시가 유기동물 무료 분양에 나섰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갈 곳을 잃은 유기동물들이 새 삶을 함께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입양을 원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서약서 작성 후 무료 분양하며, 유기동물의 분양 확대를 위해 최대 10만 원 상당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여수(전남)=김홍학 기자 jiacocom@

경북도,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사업 선정

매년 국비 2억2500만원 지원
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 구축·운영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에 신규로 선정돼 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 매년 국비 2억2500만원씩 지원받게 됐다.

올해 경북도의 첫번째 공모사업 선정이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할 외부 수행조직인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도록 추진된다.

올해 전국에서는 경북을 비롯 6곳이 선정됐다.

경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경북테크노파크(경산)가 수행하며 ▲지역과학



경북도청 전경

문화 확산 통합 거점 구축 ▲미래과학 인재양성 기반 마련 ▲도민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과학문화 연계 협력과 소통 활성화 등을 맡는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올해도 과학 분야 공모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전남도, 코로나 선제검사 확대

검사키트 2만5000명분 확보
대중교통 종사자 전수검사

전라남도는 전남의 인구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촘촘한 예방을 위해 선제 검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대중교통 종사자를 비롯 불법체류 외국인 등 외국인 밀집시설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속항원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신속 항원 검사키트 2만 5000명분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내 대중교통 종사자 1만 1000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과 고위험 산업단지 근무자 등도 신분 확인 없이 현장에서 면밀히 검사하게 된다.



전남도는 신속항원키트 2만5000명분을 확보하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 선제검사대상을 확대한다. /전남도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대중교통 종사자 등은 다수 시민들과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자신의 건강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암군, 모든 군민에 재난생활비 지급

1인당 10만원씩 내달 19일까지 지급

영암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해 7월에 이어, 올해 2차 지역(기초자치단체)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전남 최초다.

군은 지난 해 7월 30일,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재난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55억원(군비)을 투입,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을 설명절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목포시 문학박람회 준비 순항

목포시가 문학을 앞세워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발산한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개최를 목표로 '2021 목포문학박람회'의 뼈대



에 살을 붙여가고 있다. 문학박람회는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예향(藝鄕)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는 목포의 야심작이다. 기초지자체가 문학을 주제로 전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박람회라는 점에서 문학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식목포시장(사진)은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3대전략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면 문화예술은 목포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학박람회는 목포 문화예술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